

The LEET BIBLE

변호사 사례형문제 집필

오르지 않는 LEET 점수를 구원해 줄
단 하나의 교과서, 리트바이블



FINAL ROUND 2023

2023학년도 기출문제 철저분석 언어이해



FINAL ROUND

제목	The LEET BIBLE Final Round 2023 언어이해
발행일	2025년 4월 14일 초판 1쇄
Version	v2027-1.00
지은이	사례형문제
편집인	정태환
펴낸이	정태환
펴낸곳	어반컬처랩 주식회사
주소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59 대우도씨에빛2 1동 1514호 (서초동)
홈페이지	https://leetbible.com
전화	070-4138-2100
정가	39,800원
ISBN	979-11-992339-1-1(15360)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곳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이 자료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작성된 모든 내용의 권리는 작성자에게 있으며, 작성자의 동의 없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본 자료의 일부 혹은 전체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배포하거나 2차적 저작물로 재편집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무단 복제/배포/수정은 엄금하며, 본 교재의 저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 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지 아니하다.

※ 저작권법 제136조(벌칙)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들어가며

The LEET BIBLE의 집필 방향

The LEET BIBLE 초판에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귀중한 의견과 제안들은 이번 개정판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피드백 덕분에 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설명 방식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The LEET BIBLE이 LEET를 바라보는 방향성

출제자의 인적 자원 POOL이 비슷하고 평가하려는 능력과 방향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The LEET BIBLE은 **법학적성시험(LEET)이 수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패러다임을 가진 시험이라는 전제하에 접근**합니다. 이는 두 시험이 실전에서 요구하는 태도와 학습 전략이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수험생이 수능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LEET에서는 난항을 겪습니다. 만약 두 시험의 고득점 전략이 동일했다면, LEET 준비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험생이 LEET에서 좌절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학습해야 하는지를 탐구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책의 핵심 목표입니다.

수능이 정해진 학습 범위 안에서 성실한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시험이라면, LEET는 **법조인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잠재력을 평가하는 적성 중심의 시험**입니다. 따라서 LEET가 요구하는 사고능력을 이해하고, 이를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우수한 성적을 얻을 수 있으므로 기존의 대다수의 시험과 준비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많은 수험생이 LEET를 자신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시험이라고 간주하고 과거 성공했던 학습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경향, 즉 휴리스틱(Heuristic)에 빠집니다. LEET라는 시험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성공의 시작점이 됩니다. 단순히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것만으로는 원하는 성과를 얻기 어렵고, LEET가 요구하는 사고능력을 개발하는 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개념이나 원리의 이해가 아니라, “이해는 했지만 왜 적용이 어려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가?”입니다.

니다. 이는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LEET 학습의 본질적인 과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LEET 교육 시장에서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고도 명확한 훈련 방법과 방향성을 제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The LEET BIBLE은 바로 이 지점에 주목했습니다. 단순한 개념 이해나 문제 풀이 요령을 넘어서, “어떻게 사고 과정을 전환할 것인가? 이렇게 전환된 사고를 실전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한가?”와 같은 **실천적 과제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The LEET BIBLE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단순한 문제 풀이 전략을 넘어, 수험생이 실제로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고 이를 실전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책의 취지입니다.

Final Round 교재는 어떤 교재인가

이제 Final Round를 학습하시는 여러분들은 LEET 준비의 막바지에 다가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LEET 준비를 시작하신 분들이 본 교재를 보신다면, 최신 기출문제를 바로 다루어보시고 싶으신 마음이 굴뚝같은 것은 잘 이해하지만, Principle 등 더 앞단으로 돌아가서 LEET 문제에 대한 명확한 대응 방향을 학습하신 뒤 본 교재를 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시험장에서는 우리가 혼자 공부할 때와는 다른 변수들이 추가됩니다. 실제 시험 시간의 제한이라는 변수, 낯선 환경에서 높은 긴장감과 제약 속에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변수,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상하지 못하는 불확실성의 변수 등이 있겠습니다. 즉, 이러한 변수 하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한 문제라도 더 맞힐 수 있게끔 **각 문제를 푸는 우선순위, 접근방법 등 전체적인 시험운영 전략에 대한 부분 또한 제대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 교재에서는 **단순히 문제의 해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서 LEET문제를 접했을 때 과연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총체적으로** 다룹니다. 즉, 실전 연습으로 Full Set로 문제를 풀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을 배우면서 “시험장에서 지금까지 배운 것을 실행하는 것” 단계를 연습하는 커리큘럼입니다. 문제 풀이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문제 구성만 보고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부터 각 문제를 학습 이후 혼자 정리하실 때 어떤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는지 등까지 폭넓게 커버합니다.

마치 LEET 시험장에 들어갔다는 마음으로 본 교재를 학습하시어, 앞선 과거의 기출문제를 통해 훈련했던 LEET의 기초를 마음껏 발휘해 보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의 부족한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개선해, 여러분만의 LEET 접근법을 다잡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무엇이 달라졌는가

초판에서 발견된 여러 요소를 전체적으로 개선했습니다. 해설 면에서도 몇 문제에서 발견되었던 오류나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 부분을 개선했고, 편집적인 측면에서도 오타자 개정, 문장 재검토 및 나아가 교재 서식도 깔끔하고 보기 좋게 편집하였고 불필요하게 페이지가 늘어나는 부분도 최소화하여, 내실 있으면서 분량 면에서도 학습에 딱 맞는 컴팩트한 교재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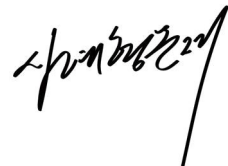
맺음말

LEET를 준비하는 수험생분들 사이에서 유명한 'LEET 신수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LEET 성 적은 신이 내린다는 자조적인 표현이지만, 이는 수험생의 도전 의지를 약화시키는 위험한 통념입니다. The LEET BIBLE은 이러한 막연한 속설을 넘어, 수험생들이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확실한 이정표가 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The LEET BIBLE에서 제시해 드렸던 방법론을 본 교재에서 다루는 최신 기출문제에 제대로 적용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원하는 LEET 점수에 다다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앞서 다룬 교재에서도 강조드렸듯 LEET는 지식형 시험이 아닌 적성형 시험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만약 본 교재로 최신 기출문제 풀 세트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특정 유형, 특정 제시문에서 즉각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가 나오지 않는다면 해당 지점을 앞선 교재로 돌아가 보충하시는 방식으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의 값진 도전이 결실을 맺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법조인으로서의 꿈을 향한 여정에 본서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자 변호사 '사례형문제'



The LEET BIBLE Final Round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

The LEET BIBLE Final Round 교재는 커리큘럼의 가장 마지막 교재로, 한 해의 전체 기출문제를 리트바이블 방식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훈련해 왔던 방법들을 토대로 실제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단순히 원리나 접근방식을 넘어서 시험장에서 행해야 하는 실전적 대응 방법도 같이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명심해야 하는 점은, 기출문제를 완전히 학습하고 제시문과 문제풀이를 다 이해하는 것이 학습의 목표가 아닌, 극도의 긴장감과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실전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한 문제라도 더 맞힐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와 훈련을 하는데 모든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Final Round 교재에서는 시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Tip을 같이 제공해 드립니다.

1 FINAL 행동강령

FINAL 행동강령

앞서 The LEET BIBLE의 LEET Tips와 유사한 형태이나, Final Round에서 드리는 팁은 “행동강령”, 즉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명확하게 제시해 드립니다. 앞선 리트바이블의 커리큘럼을 따라서 계속해서 훈련해 오셨다면, FINAL 행동강령에서 의미하시는 바가 더 확실히 와닿을 것입니다.

2 LEET 실전전략 / 사전적, 사후적 분석

LEET 실전 전략 / 사전적 분석

첫 번째 제시문을 읽을 때는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오히려 이를 대비하여 연습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파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험의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보고, 가능하다면 사실일지 문제의 선지를 최대한 읽어...

LEET 실전 전략 / 사후적 분석

1번 문제는 전형적인 대응형 문제로서 남들보다는 시간을 줄이면서 풀며 동시에 맞혔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해당 문제를 2분 30초 내지 2분에서 풀어 시간을 1분 정도 축적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험 운영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5~6분 걸리신 분이 많았습니다...

Final Round에서만 보실 수 있는 LEET 실전 전략 코너로, 사전적 분석과 사후적 분석 두 파트로 나뉩니다. 사전적 분석은 해당 문제를 처음 접했을 때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사고방식이나 전략에 대해 논하고, 사후적 분석은 해당 문제를 다 마친 다음에서의 총론 및 추가적인 코멘트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어떤 접근방식을 취해야 하는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과목이나 문제에 따라 없을 수 있습니다

3 시험장 실전 운영 전략



시험장 실전 운영 전략

Test-taking Strategy

실제 시험장에서 어떻게 시험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특히 시간적인 관점에 초점을 맞춰서 제안해 드립니다. 각 문제에 대한 개별적인 전략이 아닌 더 큰 차원에서 LEET 시험 환경을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크로 솔루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CHAPTER

01

Final Round 사용설명서 9

1. Final Round 집필 의도 11
2. 시험장에서의 실전 행동방식 13

CHAPTER

02

2023 언어이해 총평 17

CHAPTER

03

2023 언어이해 문제풀이 (상) 35

1. 1~3번 제시문: 판사의 진술함 37
2. 4~6번 제시문: 도덕 공동체와 식물인간의 도덕적 지위 56
3. 7~9번 제시문: 세포내 단백질 수송과 신호서열 이론 73
4. 1~9번 시험장 실전 운영 전략 93
5. 10~12번 제시문: 미국사학의 흐름 96
6. 13~15번 제시문: 나이의 정치적 효과 분석 114
7. 16~18번 제시문: 김자림의 희곡 「이민선」 129
8. 10~18번 시험장 실전 운영 전략 144

CHAPTER

04

2023 언어이해 문제풀이 (하) 145

1. 19~21번 제시문: 제도가능곡선 모델을 통한 제도 선택의 이해 147
2. 22~24번 제시문: 헤겔의 낭만 개념 이해 166
3. 28~30번 제시문: 벤야민의 폭력 비판과 데리다의 반응 182
4. 19~30번 시험장 실전 운영 전략 (25~27번 제외) 197
5. 25~27번 제시문: 중력파 검출기 라이고의 작동 원리와 한계 극복 방안 198

정답지 250

CHAPTER

01

Final Round 사용설명서



The
**LEET
BIBLE™**

“

드디어 Final Round.
여러분이 지금까지
갈고닦았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실 차례입니다.

제 1 장

Final Round 사용설명서

The LEET BIBLE

1 Final Round의 집필 의도

그동안 The LEET BIBLE 시리즈를 통해 쌓아온 LEET 학습의 노하우와 전략을 집대성하여, 수험생 여러분께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가이드로서의 새로운 해설서를 도입해 보고자 합니다. The LEET BIBLE 시리즈의 최종판이라 할 수 있는 Final Round는 사실상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LEET 학습에 필요한 모든 사고 과정을 담고자 하려는 시도입니다.

The LEET BIBLE Final Round 2023에는 2023학년도 최신 기출문제 중 언어이해 30문제와 추리논증 40문제에 대한 상세한 해설 및 접근법을 담았습니다. 단순히 문제 해설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전에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며, 어떻게 실전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수험생 입장에서의 접근입니다. 기존의 The LEET BIBLE의 모든 시리즈도 그러하였으나, 더욱이 이 책은 실전적 접근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후적으로 정답이 왜 도출되는지에 대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데 그치지 않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사고의 흐름을 가져가야 하는지, 그리고 흔히 빠지게 되는 함정은 무엇인지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실제로 고득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험생 여러분이 문제 풀이에 필요한 핵심 원리와 기술을 익히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최근 LEET의 난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제가 로스쿨에 입학할 때보다, 지금의 로스쿨 입시가 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의 높아진 난이도를 바탕으로 한 경향을 짚어보며,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모든 제시문을 완벽하게 독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독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과감히 넘어가되, 전체적인 흐름은 놓치지 않도록 독해 과정을 조절할 것을 Principle(상), (하)를 통하여 강조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아가 일부 제시문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문제 풀이 자체는 가능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를 염두에 두고 시험에 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저는 제시문 독해 과정에서는 목차 설정과 중요 문장 표시에 주력할 것을 권했습니다. 수년간의 기출 분석을 통해 빈출 선지로 등장하는 유형의 문장이나 핵심 개념을 담고 있는 문장을 미리 파악해 두고, 이를 토대로 독해에 임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문제 풀이 시에는 철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준비해 둔 행동 강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LEET 시험을 준비했고, 특히 언어이해 영역에서 높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기출 분석과 모의고사를 통해 출제 경향을 꿰뚫어 보는 한편, 본 시험에서는 평소 세워 두었던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침착하게 문제에 접근했던 것이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에는 저의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최대한 녹여내고자 했습니다.

The LEET BIBLE Final Round는 여러분이 막연한 두려움 없이 LEET 시험에 도전할 수 있는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줄 것입니다. 방대한 분량의 기출문제 해설을 통해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한편, 저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접목한 학습 전략을 통해 실전에서의 대응 능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다소 험난해 보이는 LEET 정복의 여정에 이 책이 좋은 동반자가 되어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책과 함께 치열하게 공부하고 또 공부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실력이 눈부시게 성장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하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HAPTER

02

2023 언어이해 총평



The
**LEET
BIBLE™**

“

2023학년도 언어이해는
확실히 지난 기출문제 대비
난이도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문제를 관통하는 핵심 원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차원의 구획을 통해
많은 부분이 해결 가능했습니다.

제 2 장

2023 언어이해 총평

The LEET BIBLE

2023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언어이해 영역에 대한 총평을 이야기하고, 실전적인 풀이 팁과 접근 전략에 대해 짧게나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시험의 언어이해 영역은 전반적으로 지문과 문항 난도가 “실전에서는” 수험생 입장에서 높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독해의 영역이 많아졌으나, 파편화된 정보만을 단순히 주우려 하는 수험생과, 그 의미와 위치를 파악한 분들 간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제시문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성은 문단 개수가 많지 않은 제시문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유의미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인생이 걸려 있는 시험에서 실제로 복잡한 개념과 이론을 다룬 인문학 지문들, 전문 용어가 뽕뽕이 등장하는 과학기술 지문들 속에서 핵심을 파악해 정답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은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단백질 수송 개념을 다룬 [7-9]세트의 경우 과학 배경지식이 풍부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독해 자체가 버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형적인 LEET 문제였고, 그 전형적이라는 뜻은 다시 말해 추리논증의 함수형 문제와 동일했습니다. 결국 앞서 The LEET BIBLE에서 줄곧 연습해 왔던 관계의 실행에 따른 다른 단어로의 패러프레이징입니다. 일반진술을 구체적 사례로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1 [1-3] 판사의 진술함

제시문의 내용 및 구성

- 판사의 진술함에 대한 찬반 견해 및 실제 법-도덕 딜레마 상황에서의 판사의 대응, 사법 정당성과 관련하여 진술함의 중요성 강조하는 구조로 전개
- 찬성론 vs 반대론, 양심과 법의 충돌, 진술함과 사법 정당성의 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판사 진술함의 문제 다룸
- 법-도덕 딜레마, 법형식주의, 법현실주의 등 차원의 구획 중요

문항 분석

- 1번: 글의 전체 구조를 패러프레이징한 문항 (평이)
 - 법-도덕 딜레마, 민주주의 등 핵심 개념 연결 관계 파악 능력 평가
 - 의식적인 개념 간 관계 설정 작업을 통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 그러나 첫 제시문이라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 어려웠을 것
- 2번: 진술함 vs 비진술함 차원의 구획 문제 (평이)
 - ~창의적인 법 해석을 하고 사정을 감추는 차원(비진술함) vs 그렇지 않은 차원(진술함)의 구분이 관건
 - 이항관계를 이용하는 경우 정답 도출 용이
 - 비슷한 것은 다른데, 같다고 생각하여 틀리게 하는 전형적인 유형
- 3번: 보기 문항 (비판론자 입장 관련 선지가 정답)
 - 법형식주의, 법현실주의 등 새로운 개념 등장에 주의 요함
 - 보기와 본문의 연결고리 파악(비판론자-진술함 옹호 입장)이 중요
 - 차원의 구획이 중요했던 문제 본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입장을 비판론자에게 투영한 5번이 정답

난이도 및 평가

- 법학 개념이 다수 등장하여 세부 내용 이해에 어려움 느낄 수 있으나, 진술함 찬반 구도 자체는 명확히 드러남
- 특히 2번은 전형적인 선지 구성방식, 3번은 차원 구획 문제로 크게 어렵지 않았음
- 다만 마지막 문단에서 새로운 개념 등장하고 글의 흐름 따라가기 쉽지 않아 세부 정보 파악은 쉽지 않았을 것
- 이해가 되지 않을수록 관계에 집중해 재독해 준비를 하는 것이 해법
- 정보 습득과정 : 중상 / 정보 처리 과정 : 중

CHAPTER

03

2023 언어이해 문제풀이 (상)



The
LEET
BIBLE™

“

2023학년도 언어이해
문제풀이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배우신 것들
마음껏 실전에서 써먹어 보세요!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판사에게 진솔함이 요구되는가 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현대의 민주국가는 판사가 내리는 판결에 강제력을 부여하지만, 사법권의 행사에 민주적 통제가 미치도록 판결에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한다. 이때 판사는 판결의 핵심적인 근거에 관해 허위나 감춤 없이 자신이 믿는 바와 판단 과정을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반대론'이 있다. 법원은 사회적 갈등과 긴장의 해소를 임무로 하므로 사형이나 낙태 문제와 같이 논란이 큰 사안을 다룰 때는 판사들의 의견이 일치된 것처럼 보이는 편이 바람직하며, 필요하면 내심의 근거와 다른 것을 판결 이유로 들거나 모호하게 핵심을 회피하는 편이 낫다는 견해가 대표적이다. 이런 반대론은 시민들이 진실을 다룰 능력이 부족하다고 전제하고 있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므로 동의하기 어렵다. 다만 판사도 거짓말을 선택해야 할 예외 상황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검토해 볼 만하다.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하는 판사에게 양심은 곧 법적 양심을 의미하므로 법과 양심이 충돌할 일은 거의 없다. 하지만 노예제도가 인정되던 시절에 노예제를 허용하지 않는 주(州)로 탈출한 노예에 대해 소유주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처럼 법적 권리와 도덕적 권리가 충돌할 뿐 아니라 법적 결론이 지극히 부정의한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이런 사안에서는 법적 권리를 무효로 할 근거는 찾기 어렵고, 그렇다고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판사는 도덕적 양심에 반해 법률을 적용하거나 도덕적 양심을 우선해 법률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자는 판사의 양심을 부정하고, 후자는 판사의 직업상 의무를 위반한다. 사임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도덕적 권리를 지지하는 판사에게 남은 선택은 그 법적 권리를 자신이 믿는 바와 다르게 당사자에게 표명하는 것밖에 없다. 즉, 판사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임을 부인할 수 없음에도 다른 합법적인 법해석을 만들어내고는 그런 법해석의 결과로 법적 권리가 부정되는 것처럼 판결함으로써 은밀하게 곤경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논의가 판사의 진솔 의무를 부정하지는 못한다. 오늘날 법과 도덕의 극단적인 괴리 현상은 드물며, 진실을 분별하고 지지하는 민주사회라면 판사가 묘책을 찾아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법-도덕의 딜레마와 진솔 의무는 노예제와 함께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판사가 특정 법률에 도덕적 저항감을 느끼는 일은 현대에도 계속되고 있다. 여기서 판사의 선택은 정의와 민주주의, 사법의 정당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진솔함의 중요성은 최근에는 다른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다. 먼저 판사의 진솔함은 사법의 정당성을 수호하는 중요한 방책이 된다. ㉠ 어떤 판사는 법이 모호하고 선례도 없어 판단이 매우 어려운 사안에서 창의적인 법해석을 한 경우에도 그런 사정을 감춘다. 이때 판사는

자신이 진정으로 믿는 법해석을 근거로 판결한 것이지만, 패소한 당사자를 설득하기 위해 판사들 사이의 상투적 표현법을 써서 이렇게 말하는 편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판사는 법을 만들지 않으며, 법을 발견하고, 법률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뿐이다." 더 심각한 것은 판사가 법 외적인 사정에 무관심하고 오직 법의 문언에 충실한 결과인 듯 판결 이유를 제시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결과를 도출할 것인지 먼저 선택한 다음에 자신이 선호하는 결과를 보장하는 해석론을 개발해 제시하는 경우이다. 이때도 판사는 으레 동일한 표현법을 활용한다.

하지만 이런 방법에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판사의 거짓말은 국민을 자율적 판단 능력을 갖춘 시민으로 존중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사법적 판단 과정의 실상이 드러나는 순간 사법의 권위와 정당성은 실추될 것이다. 법원이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는 길은 진솔함으로 국민을 대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법-도덕 딜레마 상황에서 거짓이 정당화된다는 견해도 재검토되고 있다. 거짓으로 이를 수 있는 것은 진솔함으로도 이를 수 있다.

1.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판사의 진솔함은 법-도덕 딜레마와 민주주의를 서로 연결 짓는다.
- ② 판사의 진솔 의무를 지지하는 견해는 판사가 판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법 외적인 요소들을 고려하는 것을 허용한다.
- ③ 법-도덕 딜레마 상황에서 거짓말하기를 선택한 판사는 정의를 위해 행동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법을 위해 법에 더 충실한 선택을 한다.
- ④ 판사의 진솔함이 사법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는 견해에 의하면 법-도덕 딜레마 사안에서 판사는 더 이상 거짓말하기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
- ⑤ 판사가 판결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것과 판결 이유를 진솔하게 작성해야 한다는 것은 별개이지만 모두 민주주의 원리에서 공통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2.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판사의 법해석은 법적 판단이 어렵다는 사정 때문에 상당한 재량이 행사된 결과이지만, 판사는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 ② 판사의 법해석은 기존 판례의 답습이 아니라 새로운 해석을 통한 것이며, 또한 판사도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할 것이다.
- ③ 판사의 법해석은 합법적인 해석 권한을 벗어난 것이지만, 판사는 공식적으로는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할 것이다.

- ④ 판사의 법해석은 선례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법 발견이었으며, 또한 판사도 그렇게 말할 것이다.
- ⑤ 판사의 법해석은 법률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결과이며, 또한 판사도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할 것이다.

3. <보기>의 입장에서 윗글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미국의 사법적 판단 과정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 '법형식주의'와 '법현실주의'가 거론된다. 전자에 의하면 판사는 중립적 심판자로서 사안에 법을 그대로 적용할 뿐이다. 여기에는 어떤 정치적 고려의 여지가 없으며, 판사에게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할 의무만 있다. 후자에 의하면 법은 곧 정치이고 판사는 법복 입은 정치인이다. 판사는 재판 중에 법 외적 고려에 따라 자신이 만든 법을 적용한다. 하지만 이런 표현은 판사가 판결에 이르기까지 실제 사법적 판단 과정의 양면을 극단적으로 단순화한 것이며, 실제의 과정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문제는 판사들이 사법의 권위와 정당성을 중립적 재판기구라는 점에서 찾으면서 단순화된 이론이 표방하는 문구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판사의 진솔함이 판사의 권력 남용을 저지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보는 '비판론자'는 판사들이 실제 사법적 판단 과정을 사실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그런 문구를 '고상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한다.

- ① 사법적 판단 과정도 민주적 통제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대중이 사법적 판단 과정의 실재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볼 것이다.
- ② 법현실주의자는 특정한 정치적 성향이 밝혀진 판사가 특정한 사건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예상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길 것이다.
- ③ 법형식주의자는 판사의 기본적 역할이자 임무는 도덕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관철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를 지지할 것이다.
- ④ 비판론자는 결과를 먼저 선택한 다음 이를 지지하는 법해석을 찾아내는 판사가 사용한 표현 문구에 대해 '고상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할 것이다.
- ⑤ 비판론자는 타당한 결과를 도출했더라도 이를 감추기 위해 거짓을 선택하는 것을 법의 왜곡과 법 발전의 정체가 초래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수긍할 것이다.

LEET 실전 전략 / 사전적 분석

첫 번째 제시문을 읽을 때는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오히려 이를 대비하여 연습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파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험의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보고, 가능하다면 사실일지 문제의 선지를 최대한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중요한 개념어를 미리 파악할 수 있고, 선택지의 구성을 보면 제시문의 구조를 유추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먼저 살펴보고 제시문을 읽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번 문제]

1번 사실일지 문제의 선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판사의 진술함이라는 키워드가 반복됩니다. 또한 법-도덕 딜레마라는 관계가 쉽게 눈에 밟힙니다. 이항관계적인 글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과, 그 진술함을 바탕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즉, 법과 도덕의 관계를 다루고 있어, 둘의 관계가 나오는 문장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2번 문제]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는 문제는 항상 의식적으로 반대 차원을 떠올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판의 문제라면, 비판하는 입장과 비판의 대상 입장은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를 때, 의식적으로 이 서술은 반대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습관은 제시문의 정보에 함몰되어 형식적 사고를 실행하는 것을 꺼먹지 않게 합니다.

[3번 문제]

보기 문제가 출제되면, 의도적으로 보기 문제가 갖는 특성을 이용한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 보기에서 새로운 변수가 나올 수 있다(제시문과 상관없이 정답이 도출될 수도 있는 상황), 둘째, 보기와 제시문을 관계지으려고 해도 선언할 수 없는, 즉 대응 지점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상황의 경우,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데 하나로 선언해 놓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LEET 시험의 시작, 언어이해의 첫 번째 제시문입니다. 첫 번째 제시문 및 마지막 제시문이 갖는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어떠한 언어적 표현이나 진술을 그대로 활용하거나 대응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1문단]

판사에게 진술함이 요구되는가 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현대의 민주국가는 판사가 내리는 판결에 강제력을 부여하지만, 사법권의 행사에 민주적 통제가 미치도록 판결에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한다. 이때 판사는 판결의 핵심적인 근거에 관해 허위나 감춤 없이 ① 자신이 믿는 바와 / ② 판단 과정을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반대론'이 있다. 법원은 사회적 갈등과 긴장의 해소를 임무로 하므로 사형이나 낙태 문제와 같이(사례) 논란이 큰 사안을 다룰 때는 판사들의 의견이 일치된 것처럼 보이는 편이 바람직하며, 필요하면 내심의 근거와 다른 것을 판결 이유로 들거나 / 모호하게 핵심을 회피하는 편이 낫다는 견해가 대표적이다[당위/진술함의 정의]. 이런 반대론은 시민들이 진실을 다룰 능력이 부족하다고 전제하고 있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므로 동의하기 어렵다. 다만 판사도 거짓말을 선택해야 할 예외 상황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검토해 볼 만하다.

쉬운 제시문이 왜 쉬운지를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제시문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여주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쉬운 제시문의 경우 명시적으로 글의 구조를 밝혀주거나, 문단의 기능을 언급함으로써 문단 간 관계가 자연스럽게 설정되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개념 간 관계도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제시문도 그러합니다. 첫 번째 문장을 통하여 이글의 주제에 대해서 제시합니다. 판사에게 진술함이 요구되는가에 대한 하위 차원이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제시됩니다.

판사에게 진술함이 요구되는가	
찬성론	반대론
판사는 판결의 핵심적인 근거에 관해 허위나 감춤 없이 ① 자신이 믿는 바와 / ② 판단 과정을 분명히 드러내야	논란이 큰 사안을 다룰 때는 판사들의 의견이 일치된 것처럼 보이는 편이 바람직하며, 필요하면 내심의 근거와 다른 것을 판결 이유로 들거나 / 모호하게 핵심을 회피하는 편이 낫다

위와 같이 정리는 첫 독해 과정에서 할 수 있더라도, 실제 시험장에서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문단의 기능을 바탕으로 재독해 준비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현실적일 것입니다. 즉, 이 문제에서는 찬성론과 반대론 각각의 세부 내용을 기억하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문단에서 또다시 소개와 주관적 견해라는 구획으로 구분되어서 제시되었다는 것입니다.

견해를 소개 [객관 차원]	판사에게 진술함이 요구되는가 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현대의 민주국가는 판사가 내리는 판결에 강제력을 부여하지만, 사법권의 행사에 민주적 통제가 미치도록 판결에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한다. 이때 판사는 판결의 핵심적인 근거에 관해 허위나 감춤 없이 ① 자신이 믿는 바와 / ② 판단 과정을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반대론'이 있다. 법원은 사회적 갈등과 긴장의 해소를 임무로 하므로 사형이나 낙태 문제와 같이 논란이 큰 사안을 다룰 때는 판사들의 의견이 일치된 것처럼 보이는 편이 바람직하며, 필요하면 내심의 근거와 다른 것을 판결 이유로 들거나 / 모호하게 책임을 회피하는 편이 낫다는 견해가 대표적이다.
글쓴이의 견해 [주관차원]	이런 반대론은 시민들이 진실을 다룰 능력이 부족하다고 전제하고 있어 /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므로 / 동의하기 어렵다. 다만 판사도 거짓말을 선택해야 할 예외 상황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검토해 볼 만하다.

마지막 두 문장을 통하여 글쓴이의 견해가 제시됩니다. 이로써 글쓴이는 반대론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이며, 그 근거로서 '민주주의 원리'와 관계를 설정합니다. 관계가 설정되었다는 부분들을 체크하며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그 변수들 자체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외" 상황에 대해서 긍정합니다. 아직 뒷부분의 글을 읽지는 않았지만, 무슨 정보가 제시될지 방향성이 제시됩니다. "판사도 거짓말을 선택해야 할 예외 상황이 존재한다는 주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문단]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하는 판사에게 / 양심은 곧 법적 양심을 의미하므로 법과 양심이 충돌할 일은 거의 없다. 하지만 노예제도가 인정되던 시절에 노예제를 허용하지 않는 주(州)로 탈출한 노예에 대해 소유주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처럼 법적 권리와 도덕적 권리가 충돌할 뿐 아니라 / 법적 결론이 극히 부정의한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이런 사안에서는 법적 권리를 무효로 할 근거는 찾기 어렵고, 그렇다고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판사는 도덕적 양심에 반해 / ① 법률을 적용하거나 / ② 도덕적 양심을 우선해 법률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자는 판사의 양심을 부정하고, / 후자는 판사의 직업상 의무를 위반한다. 사임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도덕적 권리를 지지하는 판사에게 남은 선택은 그 법적 권리를 자신이 믿는 바와 다르게 당사자에게 표명하는 것밖에 없다. 즉, 판사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임을 부인할 수 없음에도 다른 합법적인 법해석을 만들어내고는 그런 법해석의 결과로 법적 권리가 부정되는 것처럼 판결함으로써 은밀하게 곤경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두 번째 문단부터 양심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후속 논의를 전개합니다. 우리가 언어이해를 잃어나가면서 능동적으로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의식적으로 문단 간 관계를 연결해가면서 읽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문단에서 거짓말 선택의 예외 상황에 대해서 향후 제시될 것이라 생

각했습니다.

이 제시문에서는 후속적으로 양심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는가를 연결할 때, 어렵지 않습니다. 양심을 따른다는 의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차원과 연결 지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작업이 언어이해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하는 **판사에게** / 양심은 곧 **법적 양심**을 의미하므로 법과 양심이 **충돌할 일은 거의 없다.**

첫 번째 문장에서 **A의 B**로 법적 양심을 이야기하는데, 법과 양심이 충돌할 일이 거의 없다는 표현은 결국 거짓말을 할 상황이 거의 없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하지만 노예제도가 인정되던 시절에 **노예제를 허용하지 않는** 주(州)로 탈출한 **노예에 대해** 소유주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처럼** 법적 권리와 도덕적 권리가 **충돌할 뿐 아니라** / 법적 결론이 **지극히 부정의한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결국 핵심은 ‘하지만’ 이후부터 제시되었습니다. 왜 이 문장이 나오는지 이유를 알고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다가오실 겁니다. 거짓말에 대한 예외 상황이 생기는 경우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전제] 이런 사안에서는 **법적 권리를 무효로 할 근거는 찾기 어렵고**, 그렇다고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방법]** 판사는 ① **도덕적 양심에 반해 법률을 적용하거나** / ② **도덕적 양심을 우선해 법률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문제점]** **그러나** 전자는 **판사의 양심을 부정하고**, / 후자는 **판사의 직업상 의무를 위반한다.** **[결론]** 사임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도덕적 권리를 **지지하는 판사에게** 남은 선택은 **그 법적 권리를 자신이 믿는 바와 다르게** 당사자에게 **표명하는 것밖에 없다.** 즉, 판사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임을 부인할 수 없음에도** 다른 합법적인 **법해석을 만들어 내고는** 그런 법해석의 결과로 **법적 권리가 부정되는 것처럼** 판결함으로써 **은밀하게** 곤경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후 해당 상황에 대한 세부 진술이 이어집니다. 해당 내용들은 빨리 읽지 못하고, 빨리 읽으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전제	이런 사안에서는 법적 권리를 무효로 할 근거는 찾기 어렵고 , 그렇다고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방법	① 판사는 도덕적 양심에 반해 / 법률을 적용하거나	② 도덕적 양심을 우선해 법률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문제점	그러나 전자는 판사의 양심을 부정하고,	후자는 판사의 직업상 의무를 위반한다.
결론	사임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도덕적 권리를 지지하는 판사에게 남은 선택은 그 법적 권리를 자신이 믿는 바와 다르게 당사자에게 표명하는 것밖에 없다. = 즉, 판사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임을 부인할 수 없음에도 다른 합법적인 법해석을 만들어내고는 그런 법해석의 결과로 법적 권리가 부정되는 것처럼 판결함으로써 은밀하게 곤경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예외 상황의 경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든 간에 적용될 그 상위 차원의 전제가 제시됩니다. 즉, 법적 권리는 무효화할 근거가 찾기 어렵고, 다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도덕적 차원에서 옳지 않다는 정보를 의식적으로 관계 짓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후 방법이 두 가지가 제시되었고, 이에 대한 문제점 역시 각각 제시되었습니다.

정보를 기억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핵심은 세부적인 내용은 재독해로 넘긴다는 생각으로 문장들을 읽어나가며 위와 같이 기능 내지 목적을 바탕으로 문장 간 관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부 정보를 “수동적으로”, 즉 우리가 일부터 외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기억할 수 있게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문장을 통해서, 이 논의의 결과로 어떤 방법을 택하든 간에 결론으로서 “도덕적 권리를 지지하는 판사에게 남은 선택은 자신이 믿는 바와 다르게 당사자에게 표명하는 것 밖에 없다”라고 하여 앞서 개념들과 연결하면, 뭔가 다르게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진술과 연결할 수 있는 정보가 제시됩니다. 결국 이 제시문은 판사가 진술해야 하는 차원과 진술하지 않은 차원에 대한 정보들이 구획되어 제시되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의가 판사의 진술 의무를 부정하지는 못한다. 오늘날 법과 도덕의 극단적인 괴리 현상은 드물며, 진실을 분별하고 지지하는 민주사회라면 판사가 묘책을 찾아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법-도덕의 딜레마와 진술 의무는 노예제와 함께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판사가 특정 법률에 도덕적 저항감을 느끼는 일은 현대에도 계속되고 있다. 여기서 판사의 선택은 정의와 / 민주주의, / 사법의 정당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민주주의 - 1문단 이런 반대론은 시민들이 진실을 다룰 능력이 부족하다고 전제하고 있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므로 동의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글쓴이의 견해가 또 제시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든 간에 판사의 진술 의무는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여, 거짓말을 해야 하는 예외적인 상황은 드물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 “계속된다” / 는 논의의 평면적 변수들을 통하여 현재에도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판사의 선택(거짓말을 할지 등과 관련된 다른 단어로의 패러프레이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이 마지막 문장을 통하여, 새로운 개념인 “정의와, 민주주의, 사법의 정당성”이라는 세 가지 개념과 연결됩니다. 무슨 개념인지는 모르겠지만, 관계가 설정되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 가운데, 민주주의는 단어의 실행을 통하여 첫 번째 문단에서 관계가 설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기억이 납니다.

글쓴이의 견해	하지만 이런 논의가 판사의 진술 의무를 부정하지는 못한다.
문단 간 관계 설정	여기서 판사의 선택은 정의와 / 민주주의, / 사법의 정당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4문단]

진술함의 중요성은 최근에는 다른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다. 먼저 판사의 진술함은 사법의 정당성을 수호하는 중요한 방책이 된다. ㉠ 어떤 판사는 법이 모호하고 선례도 없어 판단이 매우 어려운 사안에서 창의적인 법해석을 한 경우에도 그런 사정을 감춘다. 이때 판사는 자신이 진정으로 믿는 법해석을 근거로 판결한 것이지만, 패소한 당사자를 설득하기 위해 판사들 사이의 상투적 표현법을 써서 이렇게 말하는 편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판사는 법을 만들지 않으며(not A), 법을 발견하고, 법률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뿐이다(but B)." 더 심각한 것은 판사가 법 외적인 사정에 무관심하고 오직 법의 문언에 충실한 결과인 듯 판결 이유를 제시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결과를 도출할 것인지 먼저 선택한 다음에 / 자신이 선호하는 결과를 보장하는 해석론을 개발해 제시하는 경우이다. 이때도 판사는 으레 동일한 표현법을 활용한다.

그리고 다음 문단에서 연결했던 개념 중 하나인 “사법의 정당성”과 “판사의 진술함”을 연결 지어 세부 정보가 제시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나마 실전에서 이해가 되는데, ㉠ 문장부터는 세부적인 정보가 쏟아지는 만큼 암기가 잘 안될 가능성이 큼니다. Not A but B와 같은 구조가 쓰이고 있고 논의의 평면적인 단어를 통하여 “외적”, “먼저” 등과 같은 단어를 줌이 최선이고 현실적입니다.

[5문단]

하지만 이런 방편에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판사의 거짓말은 국민을 자율적 판단 능력을 갖춘 시민으로 존중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사법적 판단 과정의 실상이 드러나는 순간 사법의 권위와 정당성은 실추될 것이다. 법원이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는 길은 진술함으로 국민을 대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법-도덕 딜레마 상황에서 거짓이 정당화된다는 견해도 재검토되고 있다. 거짓으로 이를 수 있는 것은 진술함으로도 이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은 첫 번째 문장을 통하여 다섯 번째 문단과의 관계가 명시적으로 제시됩니다. 다섯 번째 문단에서 어떠한 주장 또는 견해가 제시되었을 것이고, 이에 대한 비판이 결국 “사법의 정당성”도 상실할 수 있다는 위험을 이야기하며, 결국 진술해야 한다는 글쓴이의 견해를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실질적으로 문단 간 관계는 설정되더라도, 세부적으로 무엇을 구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와닿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현장 난이도는 올라가서 정보 처리 과정에서 문제 풀이의 긴장감은 배가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LEET 언어이해의 첫 제시문은 자주 이러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긴장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들께 전혀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니, 오히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긴장감 속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대응하기 위한 작업을 펼치는 연습을 수행하는 것이 수험생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는 오히려 LEET의 고득점 방식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판사의 진술함은 / 법-도덕 딜레마와 / 민주주의를 서로 연결 짓는다.

선택지의 강약을 구획한다고 할 때, 해당 선지는 일단 재독해를 하지 않더라도, 기억이 얼추 나고, 맞은 것 같다는 확신이 6~70% 드는 선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개념 간 관계를 설정하고, 이 설정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논의가 판사의 진술 의무를 부정하지는 못한다. 오늘날 법과 도덕의 극단적인 괴리 현상은 드물며, 진실을 분별하고 지지하는 민주사회라면 판사가 묘책을 찾아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법-도덕의 딜레마와 진술 의무는 노예제와 함께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판사가 특정 법률에 도덕적 저항감을 느끼는 일은 현대에도 계속되고 있다. 여기서 판사의 선택은 정의와 / 민주주의, / 사법의 정당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바로 이 문단이었습니다. “법-도덕 딜레마”라는 것은 결국 이 글의 주제는 거짓말을 해야하는 상황에 대한 다른 단어로의 패러프레이징이며, 민주주의라는 변수가 생각나는 이유는 앞서 새로운 개념이 3가지로서 연결되었다는 관계 설정을 의식적으로 각인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글 전체 구조를 패러프레이징한 선지의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했습니다. 맞는 선지였습니다.

② 판사의 진술 의무를 지지하는 견해는 / 판사가 판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 법 외적인 요소들을 / 고려하는 것을 허용한다.

저에게는 이 문장의 주어는 결국 차원의 구획으로 다가옵니다. “판사의 진술 의무를 지지하는 견해” 차원은 글쓰이의 차원입니다. 재독해 과정에서 논의의 평면적 변수로서 “법 외적인 요소들”과 “진술해야 한다”라는 차원과 관계가 형성된 적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일차적 과제입니다. 맹목적으로 제시문으로 왔다 갔다의 재독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추리논증의 강화·약화 문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관계의 유무를 살피고, 이후 관계의 정오를 따지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갔을 때, 동일한 표현이 아닌 다른 단어의 패러프레이징을 통하여 단어의 실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문단]

진술함의 중요성은 최근에는 다른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다. 먼저 판사의 진술함은 사법의 정당성을 수호하는 중요한 방책이 된다. ㉠ 어떤 판사는 법이 모호하고 선행도 없어 판단이 매우 어려운 사안에서 창의적인 법해석을 한 경우에도 그런 사정을 감춘다. 이때 판사는 자신이 진정으로 믿는 법해석을 근거로 판결한 것이지만, 패소한 당사자를 설득하기 위해 판사들 사이의 상투적 표현법을 써서 이렇게 말하는 편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판사는 법을 만들지 않으며(not A), 법을 발견하고, 법률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뿐이다(but B).” 더 심각한 것은 판사가 법 외적인 사정에 무관심하고 오직 법의 문언에 충실한 결과인 듯 판결 이유를 제시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결과를 도출할 것인지 먼저 선택한 다음에 / 자신이 선호하는 결과를 보장하는 해석론을 개발해 제시하는 경우이다. 이때도 판사는 으레 동일한 표현법을 활용한다.

4문단에서는 판사가 자신의 선호 결과에 따라 법해석을 구성하고, 진술하지 않게 법 외적 사정에 무관심한 듯한 표현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비판의 대상	~비판의 대상
법 외적인 사정에 무관심	~법 외적인 사정에 무관심
	관계 있는 차원

4문단은 ‘판사의 진술함’이 사법의 정당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제로, 진술하지 않은 태도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합니다. 특히 여기서 비판의 대상은, 단순히 ‘법 외적인 사정에 무관심한 것’ 그 자체가 아니라, 법 외적인 사정에 무관심한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이 선호한 결론을 먼저 정한 뒤, 그에 맞는 판결 이유를 구성하는 태도입니다. 즉, 본질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판

사의 불성실한 서술 방식, 곧 진술하지 않은 차원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선지에서 언급하고 있는 '법 외적인 사정'에 일정한 관심을 갖고 이를 판단의 기준 중 하나로 고려하는 것 자체는 문제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심을 갖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는 차원입니다. 글쓴이의 입장 또한, 법 외적 요소를 무시한 채 결과를 감추려는 판사의 태도를 더 심각한 문제로 간주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방향은 글쓴이의 논의 취지와도 일치합니다.

따라서 '법 외적인 사정에 관심을 갖는 것을 허용한다'는 이 선지는 글쓴이의 입장을 반영한 적절한 진술로서, 맞는 선지에 해당합니다. 2번은 맞는 선지였습니다.

③ 법-도덕 딜레마 상황에서 / 거짓말하기를 선택한 판사는 / 정의를 위해 행동하는 듯하지만, / 사실은 법을 위해 / 법에 더 충실한 선택을 한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3번 선지를 어려워 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이 선지가 비교적 쉽게 다가왔습니다. 그 이유는 전형적인 오답 선지 구성 방식, 즉 '관계 도출형 오답'의 전형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출을 분석해 보면, 이러한 오답 선지는 제시문에서 드러나지 않은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여 판단을 흐리게 하는 방식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알고 있으면 맞힐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주어에 해당하는 거짓말을 선택한 판사에 대응하고자, ~진술함 차원에 해당하는 정보는 두 번째 문단과 네 번째 문단에 제시되었으니 다시 재독해하러 가봅니다.

[2문단]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하는 판사에게 / 양심은 곧 법적 양심을 의미하므로 법과 양심이 충돌할 일은 거의 없다. **[3번 선지 대응 지점]** 하지만 노예제도가 인정되던 시절에 노예제를 허용하지 않는 주(州)로 탈출한 노예에 대해 소유주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처럼 법적 권리와 도덕적 권리가 충돌할 뿐 아니라 / 법적 결론이 지극히 부정의한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이런 사안에서는 법적 권리를 무효로 할 근거는 찾기 어렵고, 그렇다고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판사는 도덕적 양심에 반해 / ① 법률을 적용하거나 / ② 도덕적 양심을 우선해 법률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자는 판사의 양심을 부정하고, / 후자는 판사의 직업상 의무를 위반한다. 사임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도덕적 권리를 지지하는 판사에게 남은 선택은 그 법적 권리를 자신이 믿는 바와 다르게 당사자에게 표명하는 것밖에 없다. 즉, 판사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임을 부인할 수 없음에도 다른 합법적인 법해석

을 만들어내고는 그런 법해석의 결과로 법적 권리가 부정되는 것처럼 판결함으로써 은밀하게 곤경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여기서 법과 정의를 비교하는 관계가 설정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즉, “관계의 정오”로서 더 충실한 선택인지 자체를 찾기 이전에 “관계의 유무”로서 법과 정의를 비교한 적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라는 취지입니다. 이는 추리논증에서도 빈출하는 사고의 유형으로서 접근하는 방법이 같습니다.

우선, “법적 결론이 지극히 부정의한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에서도, 판사는 도덕적 권리를 지지하며 합법적인 법해석을 만들어낸다.”라는 내용은 정의와 법이 충돌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사례를 통해, 판사가 자신의 도덕적 양심에 따라 법적 권리를 부정하는 결론을 은밀히 도출하는 방식으로 곤경을 피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이 지점에서는 정의와 법 사이의 대립 또는 양립 불가능성이라는 관계가 이미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관계의 유무 차원에서는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진술입니다.

이제 그 관계의 정오를 따져봅시다. 제시문은 분명히 “도덕적 권리를 지지하는 판사”가 자신의 믿음과 다른 법적 권리를 겉으로만 수용하고, 내심으로는 도덕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하려 “거짓 법해석”을 활용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명백히, 정의에 부응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법을 도구적으로 활용하는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처럼 ‘사실은 법에 더 충실한 선택을 한다’는 평가는 제시문의 진술과는 완전히 반대 차원의 설명입니다. 판사는 법을 형식적으로 유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도덕적 신념(정의)에 더 충실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번은 틀린 선지에 해당했습니다.

FINAL 행동강령형식 사고의 출발점 : 사고의 2단계의 구획

1ST STEP-관계의 유무를 살펴라 : 각하의 논의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

2ND STEP- 관계의 정오를 따져라 : 여기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으나, 반드시 1ST STEP을 거쳐서 봐야 한다.

④ 판사의 진솔함이 / 사법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는 견해에 의하면 / 법-도덕 딜레마 상황에서 / 판사는 더 이상 거짓말하기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

이 글이 쓰여진 이유와 관련되어 있으며, 결국 글쓴이의 견해를 요약한 것이었습니다. 사법의 정당성이라는 단어가 기억이 났어야 하며, 기억이 날 수 있던 이유는 의식적으로 관계 설정을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맞는 선지에 해당합니다. 4번은 맞는 선지였습니다.